

광주시-中 칭다오, 경제·관광 교류·협력 나선다

양 도시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
중 지방도시와 7년만에 업무 협정
가전산업 등 산동성 최대 공업도시
"기업교류 등 통해 상생 발전 기대"

광주시가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와 우호 도시를 맺고 경제·관광 분야 등에서 다양한 교류·협력이 나선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고흥행 행정부 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대표단은 지난 21일 중국 산동성 칭다오시에서 '광주

시-중국 칭다오시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광주시가 중국 지방도시와 새로 교류협정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17년 장수성 연청시와 업무협정(MOU) 이후 7년 만이다.

이로써 광주시가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한 지방정부는 자매결연도시 5개국 7개 도시, 우호협력도시 10개국 18개 도시로 늘어났다.

칭다오시는 인구 1037만명이 거주하는 산동성 최대 공업도시다. 아시아 최대 구

모의 스마트 팩토리와 함께 가전·신에너지 등 산업이 발달돼 있어 광주지역 기업들과 활발한 경제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장점이 있고, 다수의 항공편이 취항하고 있어 앞으로 문화·관광·교육·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활발한 민·관 교류가 가능하다.

고광안 부시장은 "우호도시 체결을 통해 광주와 칭다오시가 가까운 친구이자 동반자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의 물길을

터나가기 기대한다"며 "양 도시가 공동 관심사와 미래 비전 등에서 폭넓게 소통하고 협력하여 상생과 번영의 길을 함께 걷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오옌 칭다오시 부시장은 "칭다오와 광주시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앞으로 양 시 관계자 및 시민들의 관계 또한 더욱 친밀해지기를 바란다"며 "양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대표단은 칭다오시 방문에 앞서 지난 20일 항저우에서 열린 '제

18회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석, 양국 지방정부의 국제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고 부시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지난달 광주시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40개 도시 143명의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한 덕분에 성공리에 마무리됐다"며 "세계 도시들의 행정 네트워크를 굳건히 하고,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해 상생 번영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시, 외국인근로자 산재교육 통·번역 서비스

사고사례·안전대책 등 지원

광주시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등 근로현장을 직접 찾아 산재 예방교육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소한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재예방 발생 현황 △사고사례 및 안전대책 △폭염 및 혹한기 대비 안전대책 △중대재해 사례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산재 예방교육 통역과 교육 자료 번역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역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참여도와 이해도를 향상시켜 근로자들이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그동안

건설현장 등 8곳을 방문해 285명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8개 언어권의 통·번역을 지원했다.

통·번역 지원사업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 모집 중이며, 센터 대표번호(1688-3828)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지속적인 산업 현장 안전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산재 예방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산재 예방교육 통·번역 지원사업 이외에도 다국어 생활고충 상담, 현장 중심의 출장상담, 법률·노무·의료 전문가 초청상담 및 정착교육, 한국어교육, 정보화교육 등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고 있다.

최권범 기자



제36회광주시민체육대회

광주 5개 자치구 생활체육 동호인, 다문화 가족, 시민 등이 24일 광주 서구 빙고체육관에서 열린 '제36회 광주시민체육대회'에서 단체 줄넘기, 한마음 계주 등을 펼치며 화합을 다지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나건호 기자

전남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안전성 강화

제품 무작위 특별수거검사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물 소비가 많은 시기를 맞아 자체브랜드(Private Brand) 제품과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11월 말까지 축산물 특별수거검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축산물 특별수거검사는 축산물 제조·판매 20개소를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과 유가공품·식육가공품 등 자체브랜드 제품 100여 건 이상을 무

작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식품 위해사고 차단을 위해 세균수·대장균군 등 위생지표균과 장출혈성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중점 검사한다. 또한 식용타르색소, 보존료, 휘발성염기질소 등에 대한 허용기준 위반 여부도 확인한다. 또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 동물위생시험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 알리고 제조·판매업체에도 신속하게 통보해 해당 제품 유통을 즉시 차단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호남권생물자원관, 섬 순환자원 활용 '핸드크림' 개발

신안군과 라벤더 추출물 활용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신안군과 공동으로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순환자원을 활용해 핸드크림 화장품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화장품 개발은 섬·연안 생물자원 연구기관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추진해온 지역상생 리빙랩(Living Lab) 연구구를 기반으로, 2022년부터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협력사업의 결실이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순환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핸드크림의 주요 원료는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신안군의 라벤더

축제 이후 남겨진 라벤더와 제주도 수산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어피(魚皮)에서 추출한 저분자 피쉬콜라겐을 활용했다.

연구진은 라벤더 추출물에서 항산화 효과와 대체동물모델인 예쁜꼬마선충(학명: Caenorhabditis elegans)의 수명연장의 효과를 확인했다. 여기에 피부건강에 효과가 있는 상동나무 추출물을 더해 섬을 대표할 만한 고품질 핸드크림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생산했다.

핸드크림은 지난 21일 신안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제철새심포지엄 및 정원도시 포럼'에서 배포됐으며, 행사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 전국서 주목

보건복지부 정책토론회 우수사례
미취학아동 조부모에 최대 30만원

광주시의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이 모범사례로 떠오르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손자녀돌보미수당 지원제도'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시의 사업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다자녀가정의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광주 대표 틈새돌봄 사업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에게 돌봄수당(20만원/30만원)을 지원하며 월 평균 200가구가 지원받고 있다.

아동 연령이 어릴수록 시설돌봄(어린이집) 보다는 가정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다. 최근 서울시·경기도를 중심으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의 벤치마킹 사례가 늘고 있으며 경상남도·부산광역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지원은 아동정서 안정 도모, 시설돌봄의 한계 극복,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등에 기여하며 가족구성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맞벌이가정의 양육

공백을 메우는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협의하고 있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또는 사업 수행기관인 광주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광주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전국 대표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며, 맞벌이·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광주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안정성과 친밀감을 주는 '가족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내달부터 4개월간 단속

광주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오는 12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 간 미세먼지 농도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매연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세종·울

산)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농도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으며, 지난 제5차 계절관리기간부터 미세먼지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본격 시행했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광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 $\mu\text{g}/\text{m}^3$ 에서 지난해 17 $\mu\text{g}/\text{m}^3$

로 35%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다. 단속은 광주 시 주요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실시하며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은 제외된다.

계절관리기간 적발된 차량은 2025년 9월30일까지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권범 기자